

## 제 목

미연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 통과로  
기업부문에 대한 긴급유동성대출 재원 4조달러 추가 확보

\* 3.2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 CNBC(3.25일), NBC(3.26일), New York Times(3.27일) 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

□ **美연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정책수단 외에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지원 등 보다 과감한 정책\***을 도입

\* ① PMCCF(발행) 및 SMCCF(유통) 신설을 통한 회사채 매입, ② CPFF를 재도입을 통한 CP와 ABCP 매입, ③ 중소기업대출프로그램(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 신규 도입 예정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연준의 긴급 조치」 참조)

□ **연준법 제13조3항**에 의거 **美연준**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unusual and exigent)” 인 경우 재무부의 사전 승인 하에 **긴급유동성대출**을 통해 **일반 기업 등에 자금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용리스크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손실보전을 위한 재무부의 재정자금 지원**이 수반

○ 또한 연준법에서 미국 정부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채무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SPV 설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

□ 최근 연준이 도입한 **5개 긴급유동성대출**(PMCCF, SMCCF, CPFF, TALF, MMLF)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ESF**(Exchange Stabilization Fund)를 통해 SPV에 **총 500억달러** (각 10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신용보증 또는 자본투자)

\* 과거 사례에서는 SPV에 대한 재무부 대출을 연준 대출보다 후순위 대출로 설정하여 재무부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뉴욕연준 등이 재무부가 제공한 자금의 9배 상당의 자금을 SPV에 대출 함으로써 5개 SPV는 **총 5천억달러의 대출지원**이 가능(레버리지효과)

○ 2020.2월말 고시된 ESF 자산규모(937억달러)를 감안할 때 3.27일 현재 **ESF의 가용자산규모는 437억달러**로 추정 (「<참고2> Exchange Stabilization Fund(ESF) 개요」)

□ 그러나 3.27일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재무부는 연준 대출프로그램 지원 재원 **4,540억달러를 추가 확보**

○ 파월 연준의장과 무누신 재무부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 재원을 기반으로 연준의 긴급유동성대출을 통해 **기업부문 등에 최대 4조달러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고 언급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안 주요 내용

지원 부문	주요 내용	예 산(억달러)
가계 및 근로자	■ 현금 지급 : 성인 최대 1,200달러, 아동 500달러	약 3,000
	■ 실업수당 기간 연장, 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약 2,500
소상공인	■ 신규 대출 지원(근로자 급여 등에 사용)	3,490
	■ 기보유 대출상환 지원	170
	■ 긴급 운영자금 지원	100
<b>기업</b>	■ 신규 대출 지원 <b>(연준 운영 프로그램)</b> (항공사 등 특정부문)	5,000 <b>(4,540)</b> (460)
	■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1,500 이상
보건·의료 및 기타	■ 지방정부 지원	1,500
	■ 재난구호기금 지원	450

<참고 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연준의 긴급 조치**

목표	정책조치	주요내용	연준법 13(3)조 적용
시장금리 하락	제로금리 시행 (3.3일, 3.15일)	정책금리를 15%p 인하하여 사실상 제로금리(0-0.25%) 시행	
	Forward guidance (3.23일)	“until we’ 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goals”	
시장기능 지원	무제한 자산매입 (QE)	국채, agent MBS 등 자산매입 확대 - (3.15일) 국채 5천억달러, MBS 2천억달러 추가매입 - (3.23일) 무제한 매입, CMBS 포함	
	PDCP (3.17일)	PD(24개) 대상으로 투자등급 채권, 지분증권 등을 담보로 최대 90일 대출제도 재도입	재무부 승인
	MMLF(3.18일)	SPV 통해 MMMF 보유자산(CD, 은행채, CP 등) 매입 자금 대출	재무부 승인 ESF 100억달러 신용 보증
	Repo 확대	1일물 1000억달러, 2주물 200억달러 → 1일물 1조달러, 1월물 5천억달러, 3월물 5천억달러	
은행대출 지원	재할인창구 (3.15일)	- 재할인금리 1.5% 인하 (1.75%→ 0.25%) - 만기 90일까지 확대 - 은행들에 대해 재할인 적극 이용 권고 (8개 대형은행 차입 실시)	
	규제완화(3.15일)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규제완화 지급준비율 0%로 인하	
기업 지원	PMCCF (3.23일)	SPV를 통해 대규모 고용기업의 투자등급 회사채를 발행시장에서 최대 1천억달러 매입	재무부 승인 ESF 100억달러 자본 투자
	SMCCF (3.23일)	SPV를 통해 대규모 고용기업의 투자등급 회사채(ETF 포함)를 유통시장에서 최대 1천억달러 매입	재무부 승인 ESF 100억달러 자본 투자
	CPFF (3.17일)	SPV 통해 CP, ABCP를 최대 1천억달러 매입	재무부 승인 ESF 100억달러 신용 보증
	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중소기업대출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공포 (3.23일)		
가계·소비자 지원	TALF (3.23일)	SPV 통해 ABS* 담보 대출을 최대 1천억달러 실시 * 학자금대출, 오토론, 신용카드론, SBA 보증론 등 관련	ESF 100억달러 자본 투자
지방정부 지원	MMLF, CPFF 적격담보 완화	단기 지방정부채 등을 적격담보에 추가	
중앙은행 협력	통화스왑 조건완화 (3.15, 3.19일)	- 주요 5개 중앙은행(캐나다, 영국, Euro, 일본, 스위스) 통화스왑 금리인하, 만기확대 - 한국 포함 9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	

<참고 2>

Exchange Stabilization Fund(ESF) 개요

□ Exchange Stabilization Fund(ESF)는 미국 재무부가 국제 통화 및 금융 정책 (외환시장 개입 포함)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 Gold Reserve Act(1934), Bretton Woods Agreements Act(1945) 등에 의거 도입

○ 도입목적 : 최초 도입시에는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시 달러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많이 활용

○ 자산구성 : 미국달러, 외환, IMF SDRs(Special Drawing Rights)

○ 보고의무 : 재무부 장관은 ESF의 운영사항을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 활용사례 : ① 1994년 멕시코(200억달러)  
② 1997년 인도네시아(30억달러), 한국(50억달러)  
③ 2002년 우르과이(15억달러)  
④ 2008년 MMMF 관련 예금 보장 등

□ 2020.2월말 현재 ESF 총자산은 937억달러 상당

○ SDR 505억달러, 미정부채 227억달러, 유로화 119억달러, 엔화 86억달러 등으로 구성